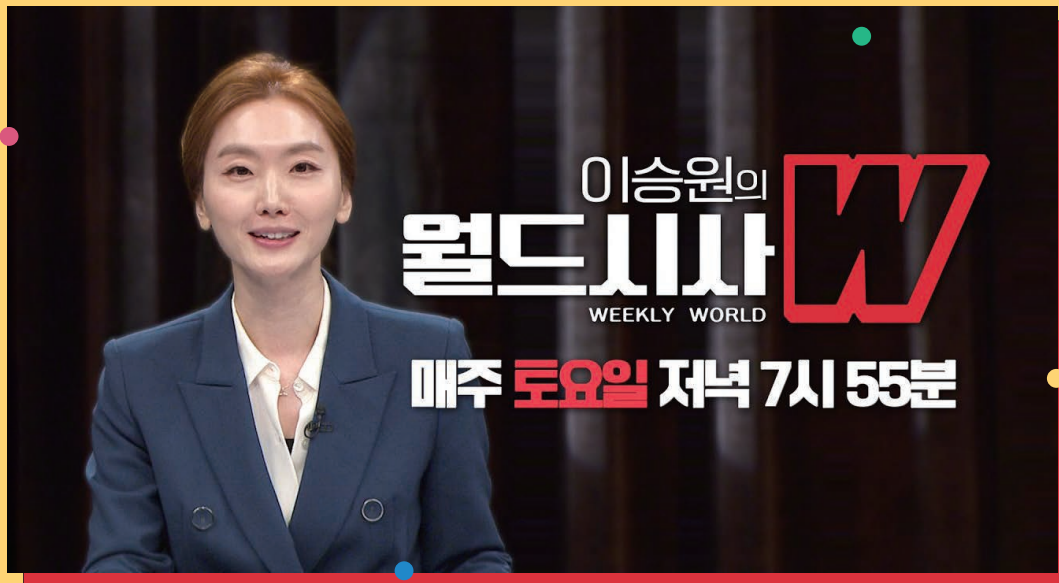




중요하지만 간과한 세계의 이슈를 읽다 **이승원의 월드시사W**

배영준 OBS경인TV 경영인프라국 조명감독



우리 일상의 다양한 곳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미디어 홍수' 시대에, 신문 한 면에서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표를 확인하던 전통의례는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집니다. '모래시계', '무한도전', '1박 2일', '개그콘서트' 등 인기 프로그램의 본방송을 시간 맞춰 기다리던 것이 일주일의 일상이던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최신 엔터테인먼트 열풍을 놓치지 않으려면 본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빠르게 변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풍경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은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고 종이 신문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으며,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시청한다는 개념도 구시대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 세계의 이야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기 프로그램의 형식과 트렌드는 우리의 시청 습관을 형성하고 세상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TV에 나오는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TV의 즉각성이 감소한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OBS경인TV는 일시적인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깊이를 찾는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W>를 통해 OBS경인TV는 동시대 프로그램의 덧없는 성격을 뛰어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는 관심을 두고 찾지 않는 한 숨겨져 있는 이야기로, 시청자에게 우리 세계의 매력적이고 종종 간과되는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흥미진진한 만큼 풍요로운 통찰력과 관점을 제공해 주는 OBS경인TV의 <이승원의 월드시사W>는 진정으로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의 즐거움을 재발견하도록 시청자를 초대합니다. 필자는 지금부터 지면을 통해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OBS에서 방송하는 <이승원의 월드시사W> 본방송은 TV로 볼 수 있고, 유튜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밤 7시 55분에 방송되며, 다양한 국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청에 앞서 출연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진행자 **이승원**은 대한민국의 저명한 뉴스 앵커 및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는 KBS에서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특히 그는 신속하고 명쾌한 보도 스타일과 깊은 이해력으로 사건을 해설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원은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데 뛰어나며, 특히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리포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정은 기자는 경향신문 기자로 오래 일했으며, 현재는 국제전문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분쟁이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강한 것보다는 힘없고 약한 것, 글이든 물건이든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지은 책으로 『사라진, 버려진, 남겨진』이 있고, 함께 지은 책으로는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 『여기, 사람의 말이 있다』 등이 있습니다.

알파고 시나씨는 대한민국의 기자, 작가, 방송인입니다. 튀르키예 쿠르드족 출신이며 에르도안 정부의 반정부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했습니다. 이름에 '알파고'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예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명입니다. 또한 이름 끝의



OBS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소개

'씨'를 한국어에서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씨(氏)'로 착각하여, '알파고 시나'가 풀네임으로 아는 경우도 있지만 '시나씨'가 지가 전부 이름입니다. 튀르키예어식으로 쓰면 '시나씨 알파고(Şinasi Alpago)'이며 시나씨(Şinasi)가 이름, 알파고(Alpago)가 성씨입니다.

언급한 출연진에 대한 정보는 포털 검색으로 찾은 내용입니다. 방송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출연진 소개란에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직접 찾아보라는 제작진의 의도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3명의 고정 출연자 외에 해당 회차마다 주제에 맞는 전문가를 2명 더 초대해서 5명이 스튜디오를 채웁니다.

매주 다루는 주제와 출연자가 달라서 여기에 모든 방송분의 내용을 전할 수 없기에 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인 6월 8일 방송분을 예로 들면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방송분에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 우캄과야 멜로디 씨와 1부에는 부산외대 인도학과 이광수 교수, 2부에는 아프리카 스토리텔러 송태진 작가가 출연했습니다. 고정 출연자 3명의 소개가 없었던 것처럼 이번 회차 출연자 소개도



위클리 업데이트 방송화면 캡처



이슈W 방송화면

이렇게 간략하게 끝났습니다. 출연자의 더 자세한 정보는 역시나 포털 검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위클리 업데이트', '이슈W', '알파고의 3분 세계일주', '소소한 문제 연구소', '이 주의 한 컷' 등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미리보기로 해당 회차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6월 8일 방송은 2024 인도 총선 결과, 알파고의 3분 세계일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내용을 미리보기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미리보기로 방송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방송 시청에 조금더 집중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보기가 끝나고 1부 출연자 소개가 이어진 뒤 위클리 업데이트에서는 한 주간의 국제 주요 뉴스를 다루는데 이번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2024 인도 총선, 멕시코 대통령 선거 결과, 중국 텐안먼 시위 내용을 화면구성으로 보여주고, 추가로 헤드라인 형식으로 4개 정도의 소식을 자막으로 보여줍니다.

OBS는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월드뉴스를 방송하는데 매일 월드뉴스를 시청할 수 없다면 '위클리 업데이트'를 통해 한 주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주간의 뉴스를 간추려다 보니 깊이 있게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지만, 주요 뉴스 중 하나를 출연자들과의 대담을 통해서 다룸으로써 이러한 갈증을 한 모금 풀어줍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멕시코 현정사상 첫 여성대통령 당선을 다뤘는데 멕시코의 정치 환경 및 상황, 새 대통령의 성향 등의 내용을

통해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멕시코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슈W'에서는 부산외대 인도학과 이광수 교수를 통해 인도 정치의 역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디의 인도 국민당이 240석 획득으로 단독과반을 실패했는데 실업률과 빈부격차, 종교 민족차별의 반감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통해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의견도 전해 줍니다.

이슈W를 통한 세계정세와 우리나라 상황의 분석은 저의 주식 투자 방향에 종종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프로그램의 절반이 진행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알파고의 3분 세계일주'는 가볍게 여행지를 소개하는 코너인데 3분 동안 알파고 기자가 여행지를 소개한 뒤 출연자들과 함께 정치, 종교, 경제, 역사 등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코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 알파고 기자 대신 당일 출연자의 여행지가 소개되기도 하는데, 시간과 돈이 있다면 가고 싶은 곳을 소개해주는 나의 여행 버킷리스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코너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를 소개했습니다.

'소소한 문제 연구소'는 첫 회 시작할 때는 없었던 최근 신설된 코너인데 패스코드 코너가 없어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코너가 변경되었는데도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패스코드는 국제 이슈 속에서 숨겨진 사실을



알파고의 3분 세계일주 방송화면



소소한 문제 연구소 방송화면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국제 정세를 깊이 있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려는 노력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소소한 문제 연구소의 첫 시작은 문화를 주제로 미국의 유명 힙합가수 칸예 웨스트를 다뤘고, 자동차를 주제로 자율주행, 과학을 주제로 UFO,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등 코너 제목은 소소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내용은 결코 소소하지 않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번 회차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다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 행사였지만 국내의 많은 굵직한 이슈에 묻혀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54개 국가 중 무려 48개 국가가 참여했는데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주의 한 컷’**이라는 코너는 이승원 기자가 선정한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출연자들의 각자 생각을 들어보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께서도 사진 한 장을 보면서 TV 속 출연자들과 공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OBS경인TV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프로그램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OBS경인TV의 지역 방송사가 갖는 독특한 위치를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iTV 정파 3년 만에 탄생한 OBS경인TV는 경기인천 지역에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개척해 왔습니다. 다른 많은 지역 민영 방송사와 달리 OBS는 온전한 자체 편성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독창성과 지역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OBS경인TV를 차별화하여 시청자에게 자신의 삶과 지역 사회에 공감하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W>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은 재미와 정보, 영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OBS 구성원의 노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모든 방송사의 생명선은 시청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이렇게 자체 편성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면 시청자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OBS경인TV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면서, 많은 커뮤니티에서 계속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을 OBS로 초대합니다. 지역이 희망입니다. 

